

忠北文化의 正體性과 中原文化圈의 忠州民俗

李昌植(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I. 문제 제기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다. 이와 관련된 관(官) 주도의 행사를 보면,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기념적인 행사 이외에 장·단기 계획에 의한 실현 방안을 제시한 측면이 부족하다. 여전히 중앙문화 중심의 관 위주 문화체계가 우선하고 있다. 지자체 이후에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보다 특정 집단의 중구난방식 목소리 높이기에 머물러 있다.¹⁾ 이제 지역사람들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은 그 문화의 독자성과 역사성 그리고 보편성을 고려하여 지역민의 삶에 대한 양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충북 지역사회(local community)의 모습살이를 통해 뿌리 내린 지역민은 충북 전역에 대한 문화의 정체성(正體性)을 찾고 이를 오늘의 문화에 걸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충북에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의 역사적·지리적 배경과 아울러 지역문화 유적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충북문화의 전통성과 지역성 그리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²⁾

여기서 기층문화(基層文化)의 민속양상을 위주로 논의하되 가층문화인 상층문화도 유기적으로 살핀다. 좁은 개념의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의 민속모형(民俗模型)은 민속지(民俗誌)적 작업을 전제하여 체계화해야 하는데 편의상 기왕의 보고서와 향토지를 위주로 제시한다. 중원문화권의 민속모형은 과학모형을 우선하여 민속사상(民俗事象)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입장에서 문화적 맥락을 정리하고 의미부여하는 틀이다. 반면에 과학모형은 중원문화권 속에서 변함없는 자연과학적 분석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중원문화권의 정체성 확인 작업은 이들의 관계가 상생적(相生的)인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학모형에 의존하면 문화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주체성 곧 지역민의 세계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지속과 변화는 자연적 배경과 인위적 환경, 지역민의 결단 등이 통시적으로 대응하

1)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제 6회 문화예술 정책세미나, 2001. 1. 3.)에서 특히 주목되는 논의는 지역문화의 '주체'와 '지역학(地域學)'이다.

2) 이 글은 '21世紀 中原文化의 비전과 戰略'(2000 한국중원지역발전학회)에서 발표한 <중원문화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충북문화에 대한 집약적 연구 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면서 형성해온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I. 중원문화권의 지역성과 정체성

충북문화의 한 축인 충북 북부지역은 흔히 중원문화의 핵심 지역인 충주를 떠올린다. 충주지역은 남한강과 달천 유역의 비옥한 평야를 끼고 발달한 곳인 만큼 충북문화의 고유성을 여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남한강 본류와 달천 등의 지류를 포함하는 중원문화는 대응적 기질 속에 선비지향의 일면과 중심 위주의 자존 속에 교류지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중원문화의 특징에는 능동적 이면서 진취적인 대응력이 돋보인다. 여느 지역과 달리 중원문화는 상층문화와 기층문화의 상호 호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³⁾

남한강 중류 유역은 한반도의 내륙 주요 무대에 위치하고 충주가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강 상류와 달천을 합류하는 중류는 밭농사와 논농사가 혼합하면서 일찍부터 정착 마을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인 충주 일대의 유역은 이른바 중원문화권이라고 불려져 충북문화의 지역성과 남한강 문화의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 지역이다.⁴⁾ 중원문화권의 전승 범위는 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괴산·음성 일부, 과거 청풍부 일부, 강원도 원주 일부를 포함한다.⁵⁾ 좁은 의미의 중원문화권의 바탕은 남한강 유역 중·상류의 산간문화와 하류의 벼농사문화를 양면으로 유지하는데 여느 지역보다 가층문화(加層文化)에 대한 대응력도 강했으나 기층문화에 대한 적층성도 독특하게 자리잡았다.⁶⁾ 중원문화권의 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지역적 성격을 드러낼 때 여느 문화권과 달리 ‘문화접변’의 양태는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한다.

1. 중원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중원문화권은 남한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어 남한강 유역 문화의 특성을 가장 총괄하여 보여주는 곳이다.⁷⁾ 남한강 유역의 복합적 문화층위를 보여주는 중원문화권은 ‘한강 수계(水系)’를 의식하여 설정되었다. 실제로 중원문화권이라는 용어는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정작 남한강 유역 문화의 정체성 또는 충주지역 문화의 본질론을 드러내는 데는 학술적인 진전과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⁸⁾ 이는 문화권역의 관념론에 매달리다가 충북문화의 고유성과 남한강 물질 천리

3) 《충주중원지》, 충주문화원, 1985.

4) 문화권의 용어는 광의의 개념보다 협의의 개념이 강하고 중원문화권 용어도 충주 또는 남한강 일대의 핵심지 위주로 범주를 설정하여 쓴다. 남한강 유역사의 입장에서 충주 일대는 남한강 상류와 하류, 한강 본류를 잇는 중요한 문화의 거점지역이면서 남·북 지방의 문화적 접점대라고 말할 수 있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4, 충주목 참조.

6) 이창식, <남한강 유역의 전승문화 연구>, 《서울문화연구》 2집, 서울문화사학회, 1999.

7) 김현길, <중원문화의 개관>, 《중원문화유적도보》, 예성동호회, 1984.

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북문화의 미래지향적 인식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거시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남한강 물길은 역사적 배경만으로 국한할 수 없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물길은 문화의 교통로이면서 문화를 창출하는 집단의 인성을 반영하는 상징인데 그 층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한강 물길의 교량지인 충주는 기호문화권을 이룩하는 한강과 영남문화권을 형성하고 낙동강을 잇는 길목이었다. 분명 충주문화는 충북문화 또는 중원문화권의 한 축임에는 틀림없다. 문화의 통시적·공시적 층위를 염두에 둘 때 다음 (표1)처럼 중원문화를 정리할 수 있다.

중원문화의 역사적 문화층위 (표1)

문화층위	문화실상	역사적 배경	민속모형
표층	중원문화	근·현대	선비지향
가층	충북 유·불, 현대문화	고대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교류지향
기층	남한강 유역	복합적 요소	대응성·내향성

이 (표1)를 통해서 충북 북부 문화에 대하여 통시적 층위(層位)를 가늠할 수 있다. 중원문화권의 상징적 의미는 남한강 물길 천리를 받아들이면서 통시적인 변화와 농경문화적 기반에 대응하여 삶을 영위한 지역민 또는 향유층의 민간사고에 있는 셈이다. 남한강의 전승문화란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적이고 체계를 이룬 가운데 변화되는 속성을 가진다. 남한강 유역의 사람들은 물질전승의 가시적 현상보다 행위·구비전승과 관련된 정신문화에서 독특한 기질이나 독자적인 사유체계를 축적하였다. 남한강 사람들은 강과 멀리 떨어진 곳과는 달리 교류문화, 교역민속 등의 기반 아래 교류의식이 두드러졌다고 본다. 이들은 민속상의 다양한 실체를 통해 문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바탕인 인성(人性)을 형성하였는데 그 전승문화의 민속소(民俗素)에 두루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상층문화의 선비지향성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중원(중계는 충주)은 남한강 수로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곳이다. 남한강의 물길은 뱃길로서 문화교류의 통로이고, 배가 닿던 나루터는 전승물의 집약적 길목이다.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던 배는 나루터와 함께 물자교류의 매개수단이다. 남한강은 조선 건국 이전에는 남북극시대의 경합지 또는 고려 시대의 수도권 배후지로 있다가 조선 초기부터는 수도권의 생산물 공급지 또는 생필품 교류지였다. 뱃길은 뗏목, 세곡(稅穀) 등을 상류에서 하류로 소금, 새우젓 등을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시키던 물길의 상징이다.⁹⁾ 이처럼 물길에 따른 교류성은 정신적 교감의 동류의식을 만들었다. 동류의식은 보부상(장사꾼), 거간, 선질꾼, 뗏목꾼 등에서 고루 나타난다.

8) 류제현, <충북 정체성 탐구를 위한 인문지리학적 논의>, (《충북학》, 창간호, 1999)에서 기왕의 문제점을 되짚고 있어 참고가 된다.

9) 최영준, 《국토와 민족생활사》, 민음사, 1997, 138~166쪽.

그들은 교역민속의 주인공들이고 남한강을 지키는 강통들이다. 적어도 중원인은 조선시대 이후에 남한강 교류문화의 중심에서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탑평리의 중앙탑(국보 6호)는 상징적이다. 중원경(中原京)에서부터 나온 중앙의식은 그 반대의 역사적 변화에 대응력을, 평상시에는 자기 중심의 자존의식을 불러넣은 계기가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이 지역을 서울 중심의 변방이라는 것보다 서울 이외의 또 다른 교류의 대표성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양반의 거점도시, 참운(站運)과 경강선(京江船)의 내륙항구도시 등으로 거듭 확인하는 셈이다.

남한강 유역의 정착민은 조선시대 물길을 따라 물상권을 가진 이주민과 남한강 주변 절경을 찾은 유람객과 교섭하면서 수도권 정황에 민감하여 ‘충청도 양반’의 기질을 보인다는 점이다.¹⁰⁾ 상층문화 또는 가층문화를 염두에 두면 주변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경제교류사 측면에서 보면 풍족한 문화적 혜택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한다. 남한강 유역의 거성(巨姓)집단이나 사족(士族)층에서는 수도권의 고급문화를 누렸고, 이러한 불교·유교적 문화는 기층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김생·강수·신립·임경업 등을 기리는 전통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가층문화에서 기호학과 학맥과 우륵 중심의 예술적 흐름이 전통 양반의 고장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 좋은 예다. 이른바 보수적 학풍과 관습을 받아들이는 ‘대접 규범’은 예향(藝鄕)의 자연 친화적 풍류와 줄서기의 대응적 내향성이라는 두 성향을 형성하였다.

중원일대의 사람들은 교류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현실대응력이 강하다. 남한강 사람들은 과거 중앙중심의 문화여건에서 변경의식이 싹텄지만 이들은 대체로 시대별로 ‘꼬장한’ 정신문화를 계승해 왔다. 남한강 유역에 양반들이 사회적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에 중원문화의 정신적 일면과 전통적 상징으로 뿌리내리게 된다. 상류 쪽은 쉼 기질과 순박성이 어우러져 있는데 비해 하류 쪽은 비공격적이고 평온한 기질을 보여준다. 이를 친교적 교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충주의 자린고비라는 언어전승처럼 인식하거나 약다는 성향을 드러내지만, 충청도 양반 또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고 하듯이 민속소에 두루 나타나는 인성은 주변적 대응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민속의 교류성과 이원성 곧 열린 강(江)의 상징과 단한 산의 경계선이 기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수계 중에서 남한강 유역의 지역민은 어느 지역보다 반상의식(班常意識)을 잠재적으로 지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원지역 전승문화는 한반도 중심부 또는 북방계 중부문화의 집결지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중원 사람들의 기질은 대응적 경향이면서 근본을 따지는 상승적 성향을 띠는 것이다. 지역 어른집단의 모범에 따르는 내향적 상향의식이 나타난다.

중원지역의 교역민속(交易民俗)과 친교적 삶은 강과 연결된 옛길이 미치는 내륙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운과 조운은 한정적인 면을 보이지만 선상의 교역은 연중적이고 이른바 강변문화를 형성하였다. 배를 이용한 물자교류는 전승문화의 기

10) 김영진, <신화 없는 영반문화>, 《자연과 문화 내고장 의미찾기-충청북도 편》, 한국이동통신 충북지사, 1995, 162~174쪽.

반과 성격에 작용하였다. 조운이 가흥창, 흥원창 등 포구를 이용하였고 선상 역시 목계, 양진 나루처럼 상업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이다.¹¹⁾

이러한 남한강 유역의 중원문화는 충북문화의 전통성과 현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오늘에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계승작업이 필요하다. 충북문화의 소단위를 금강유역 권역, 중간 권역, 남한유역 권역으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차별화 작업이 요구된다. 충주 중심의 남한강 유역 문화관광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 단체장의 협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관련 단체장은 이러한 문화산업에 마인드를 가지고 물질을 묶을 수 있는 기획을 해야 한다. 육로와 수로를 연계하여 집중 개발해야 한다. 이름하여 남한강 문화체험 코스라고 하여 남반도 핵심문화의 길을 관통하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충북문화의 한 축인 중원문화의 지역성을 충청 또는 호서라는 이름으로 대표성과 연계될 수 있다. 충청성 또는 호서성이라는 성향은 문화층위의 지역화에서 나온 것이다. 개념 집착보다 실천의 문화창달을 위주한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한 단계 좁혀 민속문화의 지역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2. 중원민속의 정체성과 복합성¹²⁾

협회의 중원문화권의 민속양태에는 독특한 ‘중원성’이 없다. 지역적 접점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현상과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지역성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사와 기질론과도 관련이 있고 그만큼 보편적 성향을 말해 주기도 한다. 민속문화의 현장성과 정통성으로 보면 특정 부분에서 중원 또는 충주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몇 가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원문화권의 민속은 지리적·인문환경적 배경에 따라 복합성의 성향을 띤다.¹³⁾ 제의는 서낭제 위주인데 유교식 의식이 두드러지고 세시풍속은 단오권의 성향이 우선하며 중부 복합성이 보인다. 생업활동도 논농사와 밭농사가 혼합된 지역이고 별신제가 용신제(龍神祭)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양진명소사(楊津溟所祠)의 오룽굿, 목계의 별신제, 엄정 창정승머리의 서낭제 등은 무속제의면서 농악을 앞세운 마을 축제의 성격을 지닌다.¹⁴⁾ 이 중에서 목계의 별신제에 대하여 중원문화권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다시 논의해 본다.

양지명소사가 자리한 탄금대 서쪽 나루와 남한강 장시 형성의 대표적인 목계나루는 고대부터 물과 관련된 성소(聖所)인 동시에 시장터다. 이 곳의 민속은 장소성과 제의성을 통해 중원다운 틀을 갖게 된 것이다. 양진과 목계는 중원 사람들의 국태

11) 최영준, 앞의 책, 1997, 참조.

12) 이창식,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 제 2집, 충북학연구소, 2000.

13) 이창식, <남한강유역의 민속과 신앙>, 《한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협회의, 1999, 415~435쪽.

14) 《민속지》, 충청북도, 1990.

민안(國泰民安)과 풍요다산(豐饒多産)을 기원하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두 곳의 제의권(祭儀權)과 상권은 전통사회에서 자율적인 자치 권한이었다.

이런 민속현상에 걸맞게 중원문화권의 상징은 중앙탑인데 ‘두 중이 마주친 나라의 한복판’ 이야기처럼 지역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전승물이 많다. 또 ‘중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에서 나왔으나 이 고장을 중시했던 지역민의 역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지명전설에는 신화소를 찾아볼 수 없고 전설소의 물적 증거가 구체적이다.¹⁵⁾ 이런 쟁패의식은 남한강 줄다리기에 드러난다. 음력 2월 중순에 동편은 충주목사, 서편은 충주영장이 패장이 되어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수, 단양, 문경, 음성, 진천, 이천 등지에서도 왔다고 한다. 이 곳 사람들의 인식 속에 충주 목계나 중앙탑이 중심이라는 관념세계가 남아 있다.

충주 일대의 민요는 <절우자>, <알라성>, <방아타령> 등의 논농사 관련 각편들이 전승된다. <절우자>는 모찌는 소리인데 여럿이 주고받으며 부드럽게 부른다. <알라성>은 모심는 소리인데 메기고 받으며 되풀이하고 강원도 아라리의 느낌이 나면서 충주적인 여유의 멋이 배어 있다. ‘모를 찢다’는 방언에서 보듯이 향토성(郷土性)이 드러나고 탄금대 방아타령이 놀이화되어 알려진 것처럼 본래 논 맬 때 ‘요성’이 변화된 것이다. 요성의 원천성은 우륵의 음악문화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상업과 관련된 ‘짐배소리’ 등이 있었으나 유희화된 <뱃소리>로 기능이 전이되어 나타난다.

충주는 남한강의 중류에 자리잡은 고장이고 한강의 중류에서도 문화적 충위를 적절히 겹친 곳이다. 충주의 물길 구비전승을 남한강 여느 지역보다 보수성과 개방성의 양축을 바탕으로 적층성(積層性)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곳이다.¹⁶⁾ 고구려비의 가시적인 상징물과 장미왕국(長尾王國)의 구비적 지명 전설은 ‘중원’이라는 중심적 민간사고의 흔적이라고 보여준다. 예컨대 보련산 가까이 있는 장미산의 산성설화에는 힘이 센 누이인 보련이 자결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동생인 장미가 이긴다는 남매 힘겨루기가 있다. 이는 단양의 온달전승 또는 제천 입석(立石)전승과 관련된 ‘성 쌓기’ 이야기보다 남성 사고의 영웅적 사고가 일반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온달의 누이는 ‘선돌’이 되었으나 보련이는 이루지 못한 비극적 결말만 남아 있다.¹⁷⁾ 또 우륵의 유적지와 관련하여 우륵전설이 전승되는데, 우륵은 청풍·중원까지 그 전승 범위가 확대되었다.¹⁸⁾

이런 점에서 중원민속, 좁혀서 충주민속은 단오권과 추석권이 겹치는 현상을 보여준다. 민속현상에는 교류적이면서 조선시대적 꼬장함이 드러나고 있다. 중원의식의 관념은 민속양태에서도 반영되었는데 중앙적 의지의 내향적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¹⁹⁾ 현실적 대응력이 지정학적 입장 때문에 친교 위주의 교류성으로 나타나기

15) 《전설지》, 충청북도, 1982.

16) 김영진, 《충북문화론고》, 향학사, 1997.

17) 이창식,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1999, 참조.

18) 김현길 편, 《탄금대 지표조사 보고서》, 충주시, 1991.

19) 중원의식은 충북 사람들의 인성론과 연결하여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충북학의 입장에서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화두는 ‘청풍명월’, ‘양반과 선비’ 등에

도 하고 ‘피해’입은 점점대의 한계로, 진취적 여유 곧 풍류성(風流性)으로 비치기도 한다. 기층문화로서 민속의 지역성은 중원문화의 기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층문화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도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충북문화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원다운 정체성은 중원문화권의 방향 모색에 중요한 준거가 된다.

Ⅲ. 목계별신제의 중원문화권적 의미

중원문화권 또는 충주문화의 핵심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남한강 목계와 관련된 것이다. 목계나루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嚴政面) 남한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다. 목계(木溪)의 옛 지명은 ‘상계’였는데 그 뒤 ‘오목계’였다가 지금의 목계로 바뀌었다. 오목계는 전국 다섯 개 안에 드는 포구라는 뜻도 있다. 목계나루(木溪津)는 한국 5대 하항(河港)의 하나로 교역의 중심지였다. 특히 영월과 제천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중원문화권에서는 가장 큰 동네로 알려졌다.

목계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에서 가금면(可金面) 가흥리(可興里)로 건너 양성면(仰城面)을 지나 경기도 장호원으로 이어지던 나루터로, 과거에는 세미(稅米)를 운반하던 가흥창을 끼고 내륙 하항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내륙 교통의 발달 및 다리의 가설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6. 25 전쟁 시기만 해도 내륙의 큰 항구 도시였으나, 6. 25 폭격과 그 후 홍수, 다리 가설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엄정면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잡곡이 생산되며, 특용작물로 깨·담배를 많이 경작한다. 목계나루의 교역 물자는 서울에서 새우젓·조기·소금·미역·고등어·설탕·광목 등이 들어오고, 목계에서는 쌀·보리·팥·조·담배·고추·베·나무 등이 나갔다. 한편 청풍에서 곡물과 담배 등을 실은 배는 서울 서빙고로 가고, 나무는 영월과 청풍에서 목계로 들어오며, 뗏목에 실어서 광나루로 가서 팔았다. 뗏목은 장마가 저서 물이 적절하게 있을 때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 목계에서 들어온 물자는 영월·문경·단양·제천 등지로 나갔다. 이처럼 짐배꾼들과 뗏목꾼들은 생업활동의 유통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전통사회의 목계나루는 부정기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으나 옛날의 성시를 이루었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목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목계 줄다리가 있고, 동제로는 서장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별신굿을 벌였다. 또한 줄다리기 때는 부정기적인 난장이 크게 섰다. 목계의 지형은 풍수지리상 삼태기형에 속하므로 이 곳에서 돈을 다 모아서 외지로 나가 쏘아야 잘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 돈을 벌면 때부자가 되지만 목계에 오래 거주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는 지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남한강 유역의 옛말에 “영월 뗏강아지 저 여울에 가서 돼지우리간이나 지어라”라는 뗏목이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라는 뜻이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강변에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뗏사공에게 이 말을 하면 부화가 나서 가다 말고 헤엄쳐 나와서 혼을 냈다고 한다. “목계 당고사가 끝나야만 날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는데 당고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비중이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말이다.

목계 서낭당에는 현판에 ‘부흥당(富興堂)’이라 쓰여 있다. 위치는 목계 인도교 옆 봉제산(봉산, 부영산, 富興山) 위에 있다. 원래의 위치는 산 밑 다리 앞 삼거리(서울 방향 쪽) 길옆에 있었는데 1968년 다리 가설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부흥당 오는 길은 가파른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 곳에는 예전의 나루터 자리만한 눈에 들어온다. 당 안에는 중앙에 서낭각시를 중심으로 왼쪽에 산신, 오른쪽에 용신이 자리하고 있다.²⁰⁾ 그 옆에 있는 산신 — 독성과 닮아 있음 — 은 호랑이와 용신은 용과 함께 그려져 있다. 서낭각시 그림은 수난을 받았다. 옛날의 그림이 없어져 다시 모신 것인데, 옛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문순자라는 신격(神格) 대상이 언제 어떤 신화에 근거하여 정착되었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

서낭각시(당각시)의 성은 문(文)씨요, 이름은 순자라고 한다. 이는 제보자 변진수가 그림이 없어져 서울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올 때 그곳 화상인 신씨가 전에도 그 그림을 자신이 그려 준 적이 있다며 서낭각시의 이름이 문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제의로는 서낭굿, 별신굿, 기우제, 오룡굿 등이 있다. 서낭굿은 정월 초하룻날 밤 6~7시 경 제사를 지내며 축관은 구장이 맡는다. 축문의 내용은 동네 불미스런 일이 없고 잘되기를 바라며, 치성 오는 사람이 아무 탈없이 돌봐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한다. 현재는 음력 정월 9일 해질 무렵에 당고사를 올린다. 제의는 동네 리장과 마을 사람 몇몇이 올라가서 지낸다. 제의 사흘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군데 편다. 제주(祭酒)는 조라술이라고 하는데 7일 전에 누룩으로 술을 빚어 항아리를 서낭당에 묻어 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익기 마련이다. 제수로는 주·과·포·팥시루·돼지머리 등을 쓴다. 이곳의 서낭은 영험하여 이 마을사람들은 강에서 탈이 안나고 대개 바깥 사람들이 와서 익사한다고 한다.

서낭제는 목계 1구와 2구가 한해씩 번갈아 교대로 지낸다. 옛날에는 정월 초닷새날 당골무당이 광대와 악사를 데리고 와서 광대놀이를 하여 돈을 모은 뒤, 7일 제주집에서 안방굿을 하고, 10일 목계나루에 있는 부군당에서 당굿으로 거행하였다. 그러나 당굿으로 행하는 서낭제는 40여 년 전에 중단되고 지금은 서낭각시의 그림이 있는 부흥당에서 마을 제주가 제물을 차려 놓고 유교식 제사를 지낸 뒤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²¹⁾

제의 시기는 6. 25 전쟁 전에는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날을 받아 매년 별신제를 지냈다. 현재는 편의 상 10월 우륵문화제 때 지낸다. 우륵문화제의 목계별신굿은 이

20) 제보자, 김현해(現 이장, 48세, 남), 2001. 8. 17 현지조사.

21) 《민속지》, 앞의 책, 478~479 쪽.

곳 부흥당에 와서 신을 받아 간다. 제수는 주·과·포·호두·잣·쇠머리·돼지머리 등을 환갑 잔치상과 같이 차렸다. 제수 준비는 구장집에서 하는데, 대동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추렴한다. 금기는 엄격하여 초상난 집이나,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 출산한 집, 개고기 먹은 사람 등은 서낭에 가지 못한다.

두무소 ‘용바위’에서 ‘무(물)제’를 지낸다. 돼지를 잡아서 용바위에 피를 뿌려 놓으면 비가 와서 씻겨내려 간다고 한다. 또는 키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까붙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기우제의 방식으로 대항주술과 유감주술을 동서에 행위화 하였다. 이밖에 다섯 용을 위한 용왕굿인 오룡제를 지낸 적도 있다. 또 물에 용왕제를 지내왔다. 개인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목계의 세시풍속에는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되는 달맞이인 망우리가 유명하다. 집이나 강변 또는 산에 햇불을 들고 올라가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또 ‘어부슴’이라 하여 2월 초하룻날 저녁 주부 혼자서 바가지에 밥을 담아 강에 가서 사해용왕님께 “동해용왕님, 어부슴합니다...”하면서 밥을 띄우고 자손들 잘 돌봐 달라고 비는 민속이 있다. 그런 다음 돌아올 때는 바가지에 돌을 3~4개 담아서 온다.

집단놀이에는 줄다리기와 낙화놀이를 들 수 있다. 목계 마을에서는 줄다리기를 ‘기줄다리기’ 또는 ‘용줄다리기’라고 한다. 줄다리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되어 2월 보름께 끝난다. 줄을 다리는 까닭은 줄다리기를 안 하면 동네가 망한다고 해서 줄을 다렸다고도 하고 또 줄을 다리지 않으면 범이 내려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줄을 다렸다고도 한다.

먼저 정월 보름에 아이들이 골목에서 20~30 명씩 양쪽에서 동편(동계)·서편(서계)으로 나뉘어 줄을 다린다. 그런 다음 좀더 큰 청년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점차 큰 줄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 어른들이 동·서로 나뉘어 밤에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동편이 지면 석전(石戰)이 나서 머리가 터지고 부상을 입곤 한다. 줄다리기는 남녀 노소가 다 한다.

줄다리기를 하려면 500토매(짚 10단이 한 토매)의 짚이 소요되므로 60리 마을마다 짚을 거두었다고 한다. 줄의 크기는 팔뚝만한 줄을 50가닥씩 모아 150가닥을 만들고 이를 셋으로 해서 꼬아 50~60발을 드려서 아름답드리만한 것을 셋을 포개 놓고 양쪽을 묶는다. 줄의 길이는 양 줄을 합하면 약 400m 가량 된다. 줄을 만들 때 여자들이 줄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만일 여자가 줄을 넘어갔다가는 맞아 죽는다고 한다. 부정이 들까 봐 양쪽에서 줄을 밤새도록 지킨다. 이는 줄에 대한 신성성과 제의성을 강조한 것이다.

줄이 완성되면 줄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주·과·포·백설기(시루) 등을 놓고 편장이 헌작하고 동네가 평안하고 농사도 잘 짓고, 또 이기게 해 달라고 빈다. 줄고사를 지낸 다음 용두머리(고 모양의 줄머리로 도래)를 쫓는다. 용두 작대기를 걸 때 양편에서는 “먼저 쟁귀라.”, “안 쟁군다.”, “쟁굴까 말까.” 하면서 이를 남녀의 성행위에 비유하며 음담을 주고받으며 실겅이를 한다. 일종의 성의례나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바로 밀어 쑥 들어가면 곧 줄을 다린다. 용두를 끼우는 과정은 매우 힘들어

사흘씩이나 간다고 한다.²²⁾

줄다리기 전에 완성된 줄을 마을 사람 수 백 명이 메고 마을의 서낭당 앞에 가서 줄패장이 ‘술렁수’하면 줄꾼들이 ‘예’하고 대답을 하고, 양쪽에 이기고 지는 것은 서낭에 달렸다고 패장이 다짐을 한다. 줄다리기의 편제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목계를 중심으로 셋강을 건너 모래밭 다리 있는 곳까지를 동계라 하고 그 반대편을 서계라 한다. 동계는 남자, 서계는 여자로 정한다. 동계는 개천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고, 서계는 양성면·소태면·가금면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다. 줄다리기를 할 때는 양편에서는 농악을 청병(請兵)한다. 서편은 장호원·이천 등에서 오고, 동편은 원주·제천·충주·음성·단양에서 오는데 깃대가 50~60개나 된다. 줄다리기는 대장 1명, 좌장 1명, 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시합 때 대장이 줄 위에서 ‘술렁수’ ‘술렁수’하면 밑에서 젊은이들이 ‘예’하고, 또 “죽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하면 ‘와’하고 함성을 지르고 ‘다리자’하는 대장의 지휘 아래 줄을 다룬다.

줄다리기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렸다. 하루에 한두 번씩 2~3일 간 줄을 다렸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맨 마지막 날에 승부를 보았다. 이때 이곳 사람들은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뒤에서 감시를 한다고 한다. 승부는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서로 비긴 것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전질이 나서 싸움이 생긴다. 그래서 비긴 것으로 해야 동네가 편안하다고 믿는다. 형제가 동·서에 살 때는 서로 못가게 하고 부자(父子) 지간에도 남이 되어 버린다. 또 승부욕이 강한 어떤 여자는 줄이 끌려가지 않도록 치마폭에 돌을 싸서 안기도 하고, 줄을 다리다 설 때 줄을 깔고 앉기도 한다.

줄다리기가 끝난 뒤 줄은 나루 모래사장에 그대로 준다. 그러면 장마 때 줄이 내려 갈 때 풍지가 올라와서 용두와 동그랗게 합쳐져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데 대개 두 줄이 똑같이 간다고 한다. 그래야 마을이 편안하고 농사도 잘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장마 질 때 줄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떠내려가다가 궁금하여 구경을 한다. 한번은 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줄을 사서 거름을 한 적이 있는데 그의 집안이 망해 버렸다고 한다.

줄다리기가 끝났더라도 줄에 연장을 대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 모두가 줄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줄은 이미 줄이 아니다. 바로 용신(龍神)이 되어 남한강의 중심인 목계강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 수줄의 가량이 부분의 줄을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밤에 줄다리기가 끝난 뒤 강변에서는 꼭두각시 놀음인 ‘박첨지놀이’를 했다. 구경꾼들이 돈을 주면 이 돈을 보태어 술·떡·돼지고기 등 제수 비용을 마련하고 서낭당에 당고사를 지낸다. 여기서 ‘박첨지놀이’는 걸립(乞粒)의 기능까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는 9년 전에 재현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하지 않는다.²³⁾

22) 줄다리기의 역사적 담론은 지역성과 놀이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각은 자율적인데 드러난 것은 농경의례의 상징성이 배어 있다.

23) 귀례석재 김경렬(61세, 남)의 제보와 작고한 우범성의 1988년 기록 자료를 참조하였다.

주로 3, 4월 밤에 두무소에서 하였다. 강통에 솜을 넣고 석유를 부어 불을 켜서 강에 띄워보내고 배를 타고 노는데 남자들은 풍물을 쳐주고 여자들은 춤을 추며 놀았다. 이 놀이는 40 여 년 전까지도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집단놀이에 난장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별신제 때는 장이 별로 서지 않지만 줄다리기 때는 강변에 난장이 크게 선다. 줄다리기는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난장도 장기간 선다.

난장을 트면 온갖 잡화를 파는 상인들과 음식점, 색주가가 들어서고, 또한 각지에서 모여든 구경꾼들로 붐빈다. 큰무당과 사당패가 노는 공간이고 영신굿과 관등놀이를 하였다. 목계는 항구도시라 특히 기생들이 많았으며, 구경꾼들은 제천 백운면, 원주 귀래, 장호원, 이천, 제천의 봉양 등지에서 많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마치 파대가리처럼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음식점도 수 백 개가 들어섰다고 한다. 난장에서 행해지는 놀이에는 씨름, 광대줄타기, 박첨지놀이, 노름(화투·윷), 동덩이(투전과 비숫함)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곡마단은 오지 않았는데 곡마단이 오면 줄판이 안되기 때문에 오더라도 쫓겨갔다고 한다.

박첨지놀이는 줄다리가 끝난 뒤 강변에서 크게 난간을 짓고 했다. 등장 인물은 박첨지, 숙녀각시, 여자 10여명 등이다. 과거의 난장에서 유명했던 음식으로는 행장떡이 있는데 이는 찰떡에 흰 고물을 묻힌 것으로 크기는 손바닥만하며 해장국에 3~5개 넣어 먹으면 맛이 별미였다고 한다. 해장국이 맛 때문에 난장거리의 인파는 대단하였다고 하였으니 먹을거리가 축제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목계별신제는 남한강 유역의 교역 중심지가 만들어 낸 최고의 축제였다. 제의성과 난장성이 어울린 공동체 제의였다. 남한강의 상징적인 민속은 목계별신제와 관련된 각종 놀이인데 대표적인 것이 별신굿놀이와 줄다리기다.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굿은 마을축제로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적인데 비해 목계 별신굿은 농경의례적인 면과 시장의 번영을 위한 기원의례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²⁴⁾ 별신굿의 제의성과 오락성을 축제의 중심이 시장의 번성과 구경거리에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줄다리기의 경합성과 대동성은 세시풍속의 주기적 의례뿐만 아니라 큰나루터라는 지역적 의미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목계마을의 축제는 충주적이면서 중원문화권의 본질을 내재하고 있었으나 강의 기능이 변질된 것이다. 중원문화권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중원문화권의 문화적 접변의식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IV. 충북문화의 변화와 중원문화권의 전망

24) 축제의 지역화 전략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연결하는 것과 전승력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그 곳만의 지역성을 획득할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목계의 마을 축제적 요소는 둘 다 해당되고 충주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앞서 제기된 실상을 바탕으로 한 중원문화의 현대화는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의 유지보존과 창조적 계승, 그리고 독창적 개발에 있다. 중원문화가 가진 장점이나 특성을 살리는 지역문화 특화전략의 추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전통문화의 인식은 보존과 개발 양면성을 상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공학적 인식이어야 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길이다.²⁵⁾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창조하고 계승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시키고, 인정받는 시점이야말로 21세기의 문화적 경쟁 속에서 이기고 살아 남을 수 있다. 중복다운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지역민의 삶으로 새롭게 계승되어야 한다. 곧 주제 위주의 문화운동(Theme Culture Movement)의 모델이 표2처럼 연계되어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원문화의 개발모형 (표2)

방향	전승화	기반화	활성화
핵심	보존	발전체계 구축	특화전략
항목	유·무형 문화재	문화재원 확충	중원적인 것, 충주적·중원적
실천	공유·교육화	인프라 장·단기	전문성 제고
지역민	자부심 심기	질적 삶 고양	경제적 활성화

중원문화의 발전은 21세기 여유 있는 중원 만들기와 아울러 지역정신을 시민 정신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 중원문화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라는 양면성이 있다. 전통의 계승에는 선택과 적층의 법칙이 있다. 중원문화 중 가치있는 전통만이 계승이 필요할 뿐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답습에 불과하다. 반드시 중원문화의 통시적 수용은 지역민의 공감과 타 문화권의 긍정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충주지역의 지역문화 곧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세계화의 방안을 모색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1. 중원문화의 전승화

중원문화의 발굴과 재현은 지역문화자원을 계승함과 아울러 농경문화 — 산업문화 — 정보문화로 이행되는 흐름 속에서 문화의 정통성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된다. 무엇보다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인식 확대와 그 보급선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원문화의 바로알리기를 위한 다양한 항목의 축제가 선보여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산업축제, 세시(歲時)연관 전통축제, 역사를 주제로 한 인물축제 등을 살려야 한다. 중원다운 축제 문화를 가꾸기 위해 문화적 분별력과 내성(耐性)을 갖춰야 한다.²⁶⁾ 중원지역의 축제는 기왕의 마을축제가 우륵문화제를 통해 총괄적으로 태어났

25) 이창식, 《문학공학과 민속학》, 대선, 2000.

26) 이창식, <충북의 축제>,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774~775쪽.

다. 우륵문화제는 예악제의(禮樂祭儀)라는 신화적 구조와 인물선양이라는 복고주의의 구조가 있다. 중원지역의 역사적 전통을 감안하여 역사주제 축제화, 관광 축제화, 교육 축제화, 향토가꾸기 축제화가 되어야 한다. 우륵문화제를 떠올리면 중원의 이상적인 시상(市像)이 이미지화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유산을 현대 감각적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우륵문화제의 정체성 논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밖에 봄에는 수안보은천제, 여름에는 목계별신제, 가을에는 사과축제, 세계전통무술축제, 겨울에는 양성온천제 등을 통해 사계절 순환식 향토축제를 가꾸어갈 수 있다.²⁷⁾ 특히 전통무술축제는 ‘태권’의 고장답게 지역마인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축제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술축제의 지역적 정체성 확보는 지속적인 학술성과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축제는 전통문화의 기반에 있다. 이 지역 대학 축제도 지역민과 연계하여 더불어 문화를 가꾸어 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²⁸⁾ 전통무술축제와 더불어 목계민속축제(가칭)는 폭넓게 검토하여 전국 10대 축제의 가치를 획득해야 한다.²⁹⁾

지역문화의 집결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박물관 활용의 극대화가 요구된다. 충주시립박물관은 중앙탑과 함께 위치와 이미지로 보아 중원문화의 상징처가 되었다. 충주대학교 박물관 전시실 등을 활용하여 중원문화의 이해의 교육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의 교육화가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는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바람직한 지역문화운동은 넓은 사회제도나 오도된 문화,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민 주체의 활동이다. 또 지역언론에서는 21세기에 걸맞는 정보화와 지역의 문화가 어울리는 기획물이 마련되어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주 MBC와 지역신문사 등의 지역중심 언론사에서 중원문화 찾기와 알리기에 지속적인 전문성과 홍보성을 높여야 한다. 이 곳에서 전통문화강좌, 역사교실 등을 개설하여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다음 세대의 인재를 교육해야 한다. 박물관 전시시설과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인물을 선양해야 한다. 지역인물은 지역민에게 정신적 활력소를 갖게 한다.

자치시대에 전통문화의 전승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의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식 전환과 시민의 전통문화 생활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도시를 계획화하는데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수용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왕의 도시계획에서 친편일률의 마인드를 벗어나 문화거리, 문화장터를 연결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수준 있는 중원 21세기 문화만들기를 위해 문화유산이 현대 도시 개념에도 접목 또는 계승되도록 설계

27) 이런 다양한 축제의 개발은 ‘지역사(地域史)’의 입장에서 공감되어야 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축제의 역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참조.

28)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29) 축제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데는 향토성 개발, 역사성 반영, 유희성 표출, 창조성 추구, 경제성 고려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교육기관에서는 참맛나는 중원문화 가꾸기를 위해 출향인사(出郷人事)는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문화의 긍지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원문화의 차별화 곧, 충주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캐릭터를 통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 중원문화의 기반화

중원문화의 관광화 기반은 수요자 위주의 고객화로 조성해야 한다. 탄금대 일원, 예성공원 일원, 미륵사적지·수안보 일원, 목계 일원 등을 중심의 방선선식의 인근 한수, 괴산, 음성, 문경 지역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관광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유무형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정비해야 한다. 문화 유적지를 테마 투어코스로 개발하고 지역 인물의 선양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또는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화 시간을 갖도록 한다.³⁰⁾ 중원 관광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되, 전통문화의 창조적 재현을 통해 외지인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중원 모든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기존 충주팔경을 확대하여 중원 십경(十景)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기반은 지역문화의 바른 정립과 관련되며 주체성 있는 향토 가꾸기의 덕목과 지역문화 운동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인간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마당에 반드시 ‘중원지역의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문화강화, 향토문화학교 운영이나 충주문화원 내의 중원문화교실을 여는 것 등이 그 대안이다. 세계화 교육도 자라는 세대 곧 초·중·고 중원의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염두에 둔 건강성, 도덕성, 세계성 등과 같은 인성교육(人性教育)에 달려 있다. 그들은 향토애를 가지고 미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지역의 주체다. 그들은 지역화를 주도하고 살맛나는 중원의 세계를 여는 인재다.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사회는 그들의 인성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문화의 독자적 창출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과 문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기 좋은 중원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는 이를 통해 지역 또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 이러한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중원문화를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

중원지역의 전통문화 고부가 가치는 엄청난 뿐만 아니라 개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상품 개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충주시 사업으로 여느 지역보다 폭넓게 정리되지 못한 무형문화에 관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서 그 결과를 자료센터에서 분류, 정리, 보존, 출판하고 이와 관련된 민속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안목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창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충주시에 위치한 대학

30) 앞의 글 참조.

을 활용하며 중원지역의 전통문화를 개발하되 그 정체성의 진단이 수준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적 깊이로 인문학의 활용, 시대적 변화인 정보기술의 요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³¹⁾ 이렇게 하면 중원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작업을 누가 봐도 옛것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과 색채감각이 이를 받쳐 주어 고품질의 문화상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목계, 탄금대 등 선비문화촌(마을)을 조성하여 친자연적 전략산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3. 중원문화의 활성화

지역문화로서 중원문화는 허상보다 실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입안자, 전문가, 지역민, 심지어 지역 청소년들까지 내면화하는 인식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중원문화의 개발은 전통문화 위주로 범고창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개발 위주의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통문화에 내재된 중원다운 인간애를 지켜갈 때 중원문화의 미래가 있다. 중원 전통문화를 마음 깊이 느끼면 그만큼 중원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전 위주의 자본주의 욕망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선적 환경친화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옛 선인처럼 문화의 친자연화, 몸과 마음의 상생화(相生化) 등 근본과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를 디자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원문화인은 특정 지적 욕망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것의 창조적 현현(顯現)을 통해 절제적 수양과 공덕의 욕망을 중원의식의 실천 작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합리주의적인 근대화 논리를 비판하고 서구적 문화의 유입으로 기왕의 전통적인 장점을 잃은 측면을 회복하며 21세기 충북문화형 찾기와 중원다운 지역문화의 모형화에 전통문화 곧 민속 현상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중원문화에 대한 정확하며 풍부한 이해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초가 된다. 지방정부의 지식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 중원문화총서와 중원 지킴이 안내서 등을 폭넓게 간행해야 한다. 이를 주도하는 중원문화연구원이 설립되어 지역의 학술적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예성동호회의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도출되어야 한다.³²⁾ 지역학(area studies)의 학문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지역학의 응집력이 필요하다. 관광센터, 문화재보호재단 등도 결성해야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중원학(中原學)의 거시적 담론이 필요하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충청북도의 충북학의 지역적 대안 찾기를 주목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주성을 유지하며 연대·협력을 촉진시키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와는 상대 개념으로 지리적·행정적 분야에 의해 나뉘진 일정 지역의 사회를 뜻한다.³³⁾ 따라서 지금

31)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참조.

32) 예성동호회의 학술적 진전과 성과는 중원문화권의 논의를 가져왔으나 충북문화의 정체성 모색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중원문화권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이론 도출을 위해 이를 주도하는 구성원들의 자기비판과 자기검열이 필요하다.

33) 최협, <전통적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 《현대사회과학연구》 제 9권, 1998.

여기의 중원 지역사회는 자생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 단위로 성립되었다.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보도 이런 점에서 자연적 지역과 인문적 지역, 이 둘을 상생적으로 조화된 고장의 유기체로 인식해야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중원문화의 창출은 이런 상생적 인식체계가 필요하다.

중원 지역문화의 담론에는 배타적 지역감정을 배제한다. 지역자존 세우기, 지역마을 가꾸기, 지역문화 사랑하기, 지역교육의 실천하기 등의 지역문화운동의 핵심항목이다. 중원문화의 지역발전은 지역감정이 앞서기보다 이성적·합리적 태도가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지역문화의 복사품이나 선진문화의 복제품은 중요하지 않고 특화를 통한 범고창신화의 길이 요구된다. 중원 지역사회개발과 문화제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개발과 보존, 전통과 현대라는 상충적인 개념에서 지역발전 방향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내재한다. 지역사회가 공동운명체라는 명제가 두루 통하듯이 지역문화와 문화제는 지역정신의 공급처이며 동시에 지역발전의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원지역 문화의 활성화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데 일체감과 참신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단체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간 합리적인 의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진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중원문화의 활성화 길은 중원일대에 독특하게 적층된 문화 요소를 전략적으로 특화하여 창신(創新)하는 데 있다. 핵심지, 중간지대, 위성지역 등의 개념을 동원하여 충북권의 개발전략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환경친화적·문화친화적 모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 충북문화의 전망과 지역문화의 현안

21세기부터는 무엇보다 문화에 의하여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어느 권역이든 심화되고 있다. 충북문화의 정체성에 대하여 남한강 권역을 염두에 두고 좁은 의미의 중원문화에 대한 정통성과 지역성을 강조해 보았다. 기존의 큰 개념의 중원문화권에 실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원문화권은 크게 권역(圈域)상 중부지역의 대표성을 띤다. 좁게는 충북문화권의 남한강 수계의 충주 중심축을 이룬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논의에서 후자의 입장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화양상을 통해 새로운 중원문화의 창출에 보다 더 관심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수행가능성'이 발견되나, 이 특성에 대한 지역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중원문화의 특징은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축적된 문화층위가 여느 지역보다 폭과 넓이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목계별신제의 지역적 담론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잃어버린 지역의 현상을

드러내는 작업이 부족하였다. 중원문화의 미시적 성격은 이러한 거시적 실체에서 정밀하게 하나씩 밝히고 이를 중원문화의 독창성으로 체계화할 때 ‘중원다운’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21세기에 펼쳐질 바람직한 중원문화의 제고를 위해서 중원문화의 층위를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재생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역문화의 창조적 실천은 지역주의의 이념과 맞물려 지역민의 욕망이라는 관계망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중원문화권의 특정 영역에서 비롯된 좁은 뜻의 공간설정에서 벗어난 전략적 범위 설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학적 관점에서 충북지역과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위상을 검토해야 한다.

중원문화의 계승화 방안도 주제가 있는 문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승화, 기반화, 활성화 등 단계별 동시다발의 전개가 필요하고 이를 장·단기 계획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관 주도의 광역화된 중원문화권의 가상적 논의보다 충북 북부 지역 곧 중원지역의 세부적인 문화요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여야 이른바 개발의 ‘정통성’도 공인되는 것이다. 관념적인 구상보다 실사구시적인 대안과 실천 항목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원문화의 미래는 한반도의 중심권역에서 축적해 온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그 확산에 이바지하는 충북인의 지역 의식에 담겨 있다. 이처럼 충북문화의 지역 특성화는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중앙 권력 중심의 확인화나 계몽주의적 정리 차원이 아닌 ‘지금 여기’ 실천론의 입장에서 가장 중원다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승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